



도심 생활권의 공원 같은 학교 - 인천 산곡여자중학교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교사(校舍)는 온통 담쟁이 넝쿨이 나풀거린다. 어디엔가 숨겨져 있는 꽃봉오리들은 화사하고 앳된 모습으로 금방이라도 쏙 고개를 내밀 것 같은 아름다운 학교가 바로 인천 산곡여자중학교다.

이 학교는 붉은 벽돌 건물에 담쟁이로 둘러싸여 있어 사계절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계절에 따라 꽃과 잎의 변화가 다양한 수목과 화초의 조경이 아름다워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

봄에는 진달래, 철쭉, 라일락, 살구꽃, 벚꽃, 꽃사과를 비롯해 홍매화, 황매화(죽단화), 명자나무, 모과나무, 사과나무 등 봄꽃이 겨울의 시린 기습을 환하게 밝혀 주고 학교 교문에서부터 반기는 목련이 향기마저 풍기어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한다.

지역 단위의 그린 커뮤니티 조성

산곡여중은 운동장과 몇 그루의 나무만 있는 삭막했던 학교였다. 그러나, 학교 종합 조정 계획을 세워 추진한 결과 다양한

화초와 수목이 울창하고 특히 봄에는 작은 공원으로 손색이 없는 학교가 되었다.

여름에는 담쟁이가 교사 건물 전체를 뒤덮어 싱그럽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며, 운동장에는 우거진 신록이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 생활을 지켜보고 있다. 학교에 심어진 나무들은 자기를 자랑하듯 특이하나 특이점을 기록한 명찰을 달고 있다.

이 학교는 학교 공원화 사업을 꾀하고 체험 학습장을 조성하였으며,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 체육시설 및 휴식 공간을 조성하였다. 또한, 바로 옆에 위치한 산곡남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지역 소규모 열린 녹지를 조성하고, 그린 파킹 사업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지역 단위의 그린 커뮤니티(green community)를 훌륭하게 조성한 것이다.

특히, 산곡여자중학교는 주변 연립주택의 재건축 사업과 연계해 녹색 학교 만들기를 추진하였다. 체험 학습장은 학생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권 녹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꽃피는 봄에 맞춰 학교를 찾는 지역 주민들은 작지만 아담하게 잘 조성된 체험 학습장과 자연의 즐거움을 실감하며, 자녀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 칭송이 자자하다. 이 학교는 향후 주변의 천주교회 및 부평사회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체험 학습장, 생태 연못 등을 확장하여 지역 단위 친환경 커뮤니티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운동장 화단을 이용하여 시화 전시

이 학교의 장승은 원래 운동장의 끝자락에 본관 건물을 마주하여 한 쌍이 서 있었다. 하지만 15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학교만 지켜보다 한 쪽이 쓰러져 새로이 한 쌍을 조각하여 2006년도에 학교 입구에 다시 설치하였다. 학생들은 전통적인 색채가 나타나는 장승이 자신들의 등교 길을 지키고 있었던 것을 행복한 기억으로 오래도록 간직할 것이다.

운동장의 가을은 환상적이다. 담쟁이는 붉게 물들어 단풍이 자신들의 한해살이를 아름답게 갈무리하고 있어 학생들이 가을의 애상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시

기에 축제를 열어 교정에는 한껏 멋있는 시화가 전시된다. 가을 축제는 담쟁이 넝쿨 축제이다. 축제에서 예쁜 운동장은 시화 전시회의 무대가 된다. 학생들의 작품은 교정 여러 곳에 놓이게 되고 학생들은 가을 햇살이 머무는 시화를 바라보면서 가슴 가득 꿈을 새기게 된다.

담쟁이 넝쿨이 시들어 떨어져 가을바람에 날리고, 모과는 노란 얼굴을 햇살에 반짝이고, 학생들이 시화를 보며 삼삼오오 모여 다니는 모습은 정경이 그지없다.

실내 미니 갤러리

학교 실내 환경 또한 매우 청결하다. 각 층별로 색상을 달리한 도색과 테마가 있는 갤러리형으로 인테리어를 하여 일상적인 교육 과정에 자신들의 색깔을 잃어가기 쉬운 학생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과 심미안적인 체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복도 또한 층별로 색상을 달리 도색하여 다양한 테마를 주고 갤러리를 구성하였다. 먼저 시작한 작업이 중앙 현관 및 1층의 '꽃'을 주제로 하는 학생 유화 작품 갤러리이다. 학생들이 캔버스에 유화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 전시를 하며 찬조 작품은 학교에서 영구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이므로 다양한 분야의 그림을 계속 확보하여 전시하도록 하였

다. 중앙 현관의 목련 갤러리를 중심으로 1층 중앙 계단에는 화가 이정, 장주봉의 한국화 대작이 2작품 전시되어 학생들의 미적 가치를 수준 높게 고양시키고 있다.

또한, 실내 화분 기르기를 학생들의 자율적인 활동으로 실천하고 있다. 자신들이 가져 온 작은 화분을 창가에 놓고 미니 화단을 만들어 아름다운 실내 분위기가 조성되고 스스로 꽃을 가꾸으로써 정서 순화 및 인성 교육에도 일조하고 있다.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학교

산곡여자중학교는 부평구청이 지원하는 학교 내 지역 사회 커뮤니티 지원 사업에 공모해 20억원의 예산을 받아 체육 시설을 건립하여 주변 주민들의 체육 시설로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즉, 운동장 시설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봉사에도 참여하는 학교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산곡여자중학교는 공공 시설이 완료되면 운동장 주변 공지에 나무를 심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 거점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정에 나무를 심고 연못과 산책로를 만들며, 옥상 녹화 등을 해 학생들에게는 자연 학습 공간이자 주민들에게는 녹색 쉼터를 만드는 도시 녹화 방법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것이다. 이는 녹지 확보가 어려운 산곡2동의 도심 생활권에 토지 보상 없이 지역 거점 녹지 공간을 조성할 수 있어 학교는 물론 학생,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와 지역 주민들은 시설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그 결과 청소는 물론 환경 정비, 물주기 등 일상적인 관리는 학교에서 주관하고, 병충해 방제,



학교 입구 장승.



꽃 테마 갤러리.

고사목 제거, 비료 주기, 노후 시설물 보수 정비 등 전문적인 관리 지원은 주민들이 맡아 하고 있다.

자연의 정이로움 앞에서 겸손함을 배우듯 산곡의 딸들은 큰 꿈과 포부를 가지고 현재란 언제나 새로운 체험이라는 의미를 상기하고 있다. 미래는 어느 순간 갑자기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삶의 연속선상에 있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약은 시간이 아니라 바로 노력일 것이다.

산곡여자중학교의 김춘희 교장 선생님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 의무는 공부하는 자유이고 마음껏 가질 수 있는 것은 지식이다"라는 말을 학생들에게 늘 한다고 한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산곡여자중학교는

인재의 요람으로서 이 사회에 우뚝 설 것으로 확신한다. 

정관영
충북교육청 건축사무관(공학박사)

진입로 수목과 건물외벽 담쟁이의 조화.

